

삼성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8 January_Vol.180

새해에는
날마다 행복하세요



Cover story

새로운 한 해,
새 마음으로 힘차게!

2018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매일 뜨고 지는 태양이지만,
새로운 해에 떠오르는 태양은 많은 설렘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새로운 시간 속에서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아우구스티누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된 새해,
새 마음을 가득 담아 힘차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복이 깃드는 행복한 2018년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Contents

January 2018 Vol.180 삼성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CEO 신년사**
鵬程萬理, 원대한 비전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 06 **운영위원 신년사**
Vision 2020 위한 힘찬 2018년을 기대하며!
- 08 **Team Story**
삼성KPMG 관세팀
- 10 **Client+**
동화약품
- 12 **Market Reader**
2018년 국내외 경제 트렌드에 주목하라!
- 16 **Expert's Advice**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 보안 전략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17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 19 **Culture Relay**
행복한 우리 본부 문화를 소개합니다!
- 20 **Hello! 2018**
황금 개띠 삼성인들의 2018년 롤모델은 누구?
- 22 **인재양성소**
재능 기부 활동으로 인재 성장에 앞장서는 삼성인
- 24 **KPMG Tour**
CM본부 박소은 Associate가 전하는
캐나다 캘거리 & 밴프 여행기
- 26 **Culture & Etiquette**
북아메리카 남서부의 거대한 나라,
멕시코의 문화와 에티켓
- 28 **KPMG Story**
2018년, 나에게 KPMG Story는 이다!
- 30 **Samjong News**
삼성KPMG, 시무식 개최...2018년 힘찬 출발! 外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보명C&I(02-2274-4545)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 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鵬程萬理, 원대한 비전으로 비상하는 한해가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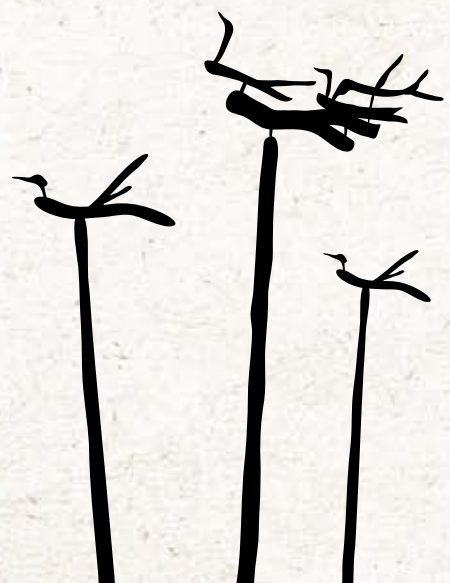
— 삼성KPMG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무술년(戊戌年)으로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개띠 해라고 합니다. 개는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이자, 충성심과 책임감이 강한 동물입니다. 개의 강직한 성품과 인내심으로 새해에 계획한 목표를 이루어 밝고 빛나는 2018년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이 'Vision 2020: The Clear Choice'를 선포하고 Vision 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져온 해였다면, 지난 2017년은 Vision 실현을 위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온 해였습니다.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 'Business Development 활성화', 'Quality Performance'를 핵심전략으로 내세워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전력 질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3년 연속으로 최다 인원의 신입회계사를 채용함과 동시에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성적우수자를 2년 연속으로 최다 배출함으로써 양적 질적 모든 면에서 인재 확보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Global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인원 규모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우수 인재 육성에 도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Business Development 활성화를 위해서 본부 간 BD 협업 문화를 정착하고 신규 업무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삼성KPMG는 FY17 회계연도에 KPMG ASPAC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Global Board 국가 중에서도 성장률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삼정KPMG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를 통해 ACI 세미나 개최, 감사위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저널」을 발간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더불어 여성 리더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 지부를 설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2월에는 업계 최초의 표준사업장인 '파란행복'이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삼정KPMG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삼정KPMG 임직원 여러분,

최근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계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 외감법은 더 나은 회계감사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매우 엄격한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을 회계법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올해 더욱 가속화되고 파급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삼정KPMG는 2018년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Vision 2020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것입니다. Vision 2020 선포 이후 우리는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 품질관리 강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고, 삼정KPMG는 그 어떤 변화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莊子) 소요유편에는 '봉정만리(鵬程萬里)'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설 속의 '봉'이라는 큰 새는 날갯짓이 3천 리에 이르고 단숨에 9만 리를 난다는 말로서, 원대한 꿈을 실현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Vision 2020: The Clear Choice'라는 원대한 포부가 있습니다. 2018년에도 원칙에 충실하고 임무 앞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삼정KPMG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Vision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2018년을 만들어 갑시다.

삼정KPMG 가족 여러분, 새롭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설렘과 기대를 안겨줍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설레는 일 가득한 멋진 한 해를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삼정KPMG CEO 김교태

Vision 2020 위한 힘찬 2018년을 기대하며!

운영위원이 전하는 2018년 신년사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여, 삼성KPMG 운영위원이 신년사를 보내왔다.
운영위원들이 전하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Vision 2020: The Clear Choice'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삼성KPMG의 힘찬 2018년을 기대해본다.



Audit **신경섭** 대표

응변창신(應變創新):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환경을 개척하는 2018!

2018년, 황금 무술년을 감사환경의 큰 변화가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혁신적인 변화에 우리가 함께 몰입하고, 고민하며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면, 신뢰를 부여(Inspiring Confidence)하고 변화를 주도(Empowering Change)하는 우리의 소명, KPMG Purpose에 한 걸음 더욱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삼성KPMG 가족 여러분 모두 긍정적인 기대와 희망찬 변화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Risk Management
서원정 대표

철저한 직업윤리 의식으로 Public Trust를 확보해 갑시다

지난 한 해는 소용돌이 치는 국내외 정치적 변화들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회계업계도 분식회계로 인한 감독당국의 재제와 형사판결, 그로 인한 사회적 신뢰의 추락 등 큰 외상(外傷)을 입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정제 확대로 대변되는 개정 외감법의 국회 통과로 큰 변화의 물꼬를 튼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무술년 새해는 감사환경과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 외감법의 디테일을 다듬고 완성하는 동시에 우리 모두 철저한 직업윤리 의식을 가지고 업무현장에서 최고의 품질로 Public Trust를 확보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COO **한은섭** 부대표

주마가편(走馬加鞭), 승풍파랑(乘風破浪)의 한 해 되세요!

국내외적으로 어려웠던 2017년이지만, 삼성KPMG는 모든 임직원이 Working Together로 뚝뚝 뭉쳐 슬기롭게 극복하고 크게 성장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18년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고, 먼 곳까지 불어가는 바람을 타고 끝없이 전진하는 주마가편과 승풍파랑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COO로서,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를 위해 고객뿐만 아니라 임직원으로부터도 Clear Choice가 되는 삼성KPMG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삼성KPMG 여러분 가족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Winning Culture를 통해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갈 것!

지난해 국내외 정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성장을 이루어 내신 삼성KPMG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을 맞이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Vision 2020을 생각해 봅니다.

Deal Advisory에서는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Deal Sourcing 강화와 Client Coverage 확대를 Action Plan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Winning Culture를 통하여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Deal Advisory
구승희 부대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2018년!

한 해가 저물고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반복하는 맺음과 시작이지만, 이루어온 것들이 있기에 항상 새로운 시작입니다.

삼성KPMG Tax는 젊은 조직으로서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어제의 땀은 조직 역량으로 축적되어 왔고, 오늘 여러분의 노력은 다시 내일을 헤쳐나갈 힘이 될 것입니다.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힘차게 도전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2018년을 만들어 갑시다.

무술년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TAX 최정욱 부대표

초불확실성 시대의 위기를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성KPMG 식구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각오 그리고 설렘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버릴 것이니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라 합니다. 세상은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위기를 우리는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삼성KPMG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열정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Consulting
정대길 부대표

일의 가치를 찾아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2018년이 되기를!

지난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삼성KPMG와 Business Consulting Service(BCS)는 지난해 회계, 컨설팅 업계를 비롯한 국내외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열정을 가진 전문가 여러분이 하나로 힘을 모은 덕분에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큰 성장이 예상됩니다. 새해에도 기본에 충실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일의 가치를 찾아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Business Consulting Service
배홍기 부대표

One Stop 통합 서비스 제공하는 최고의 관세 파트너, 삼성KPMG 관세팀

삼성KPMG 관세팀은 지난해 12월 1일에 열린 '2017 관세평가연구용역 시상식'에서 관세청장 표창(우수상)을 수상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분야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관세조사, 외환조사, 불복자문 등을 One Stop 통합 서비스로 제공하며, 국내 최고의 관세 자문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세당국의 수출입 가격조작 및 외환검사 확대 예상, 수출입 기업들 관세 및 외환 리스크 사전 검토 필요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통상환경은 자국산업의 보호, 관세 조사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이면서, 국내에서는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관세조사, FTA 검증, 외환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뉴엘 사건 등 수출입 가격 조작을 활용한 국외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사건의 증가로 무역 질서를 해치는 지능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당국은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관세 및 외환 범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관세조사는 저세율 품목 또는 FTA 적용품목, 특수관계자 거래 등 수출입 가격을 고의로 저가 또는 고가 허위 신고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환조사는 2018년 상반기 중 주요 세관의 외환조직을 개편 또는 확대하여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외환검사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 강화되는 관세 및 외환조사 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입 기업들은 글로벌 통합 관점에서 예방적이고 전략적인 관세위험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FTA 활용 또는 저 관세율 품목을 취급하는 다국적 기업은 과거 관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사형태(저가 에 수입여부 검토)와는 다르게 고가수입을 통한 가격조작 등 새로운 테마의 조사형태에 대한 리스크 검토가 필요하다.

풍부한 경험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관세팀

관세 자문은 무역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하면서 폭넓기 때문에 전문가 1인이 다방면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각 세부분야(관세평가, 이전가격, 품목분류, 외환, FTA, 관세환급 등)를 관세청, 세관, 컨설팅 업계 등에서 심도 깊게 경험한 입증된 전문가의 그룹화가 그 자문사의 자문 품질을 결정한다.

삼성KPMG 관세팀은 이러한 관세자문 시장의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한계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했으며, 각 세부 분야별 풍부한 경험 또는 시장에서 검증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전직 관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 전직 중앙관세분석소장(품목분류 분야)뿐 아니라 관세 전문분야 최고의 고문단 및 실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 4대 핵심 분야(관세평가, 품목분류, FTA, 외환 등)에 경험이 풍부한 고문단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관세 자문팀이다. 삼정KPMG 관세팀의 실제 프로젝트 수행 시 각 분야 고문단이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되어 지원하며, 이를 바탕으로 타 법인에서 찾지 못하는 솔루션을 빠르게 연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품목분류 분야에서 최근 2년간 고객이 과오납 한 관세 등을 약 500억 환급해 준 바 있으며, 관세조사 및 관세환급 관련 자문에서도 최고의 역량을 인정받는 등 '1등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 관세 전문 자문사 중 'NO 1'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지금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및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고객으로 관세 자문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업의 입장에서 역율하게 과오납한 세금을 찾아주거나, 향후 절세 및 추가 환급 방안, 비즈니스 구조 변경을 통한 FTA 활용 혜택 등을 같이 고민하면서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 및 통상 복합 자문팀으로 거듭날 것

삼정KPMG 관세팀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 및 통상 복합 자문'이라는 비전 아래 최고의 인재들을 계속 영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음에 따라, 5년 이내 주요 해당 국가(특히, 아시아 권)의 관세조사가 이전가격 측면에서 전문화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삼정KPMG 관세팀은 국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 자문 경험 즉 풍부한 In-Bound 관세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Out-Bound 관세 자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외 관세규정을 모니터링을 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 및 통상 복합 자문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삼정KPMG 관세팀의 최고 장점은?

“삼정KPMG 관세팀은 국내 관세 컨설팅 전문법인 중 최대규모로 이전가격, 관세평가, 외환, 품목분류, FTA, 환급, AEO 등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완벽한 Co-Work를 이루며, 관세 전 분야에서 집단지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또는 글로벌 수출입 기업들이 어떠한 관세 관련 질문을 하여도 최고의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를 발견하여 함께 풀어가기를 제안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윤식 상무이사(팀리더)

Tel. 02-2112-6910 / E-mail. yunsigchoi@kr.kpmg.com

“삼정KPMG 관세팀은 대부분의 경쟁법인들이 In-Bound 서비스만 가능한 것에 비해 Out-Bound 서비스(예: 한국이 본사인 기업의 해외현지법인 관세진단 및 FTA 효용성 증대 자문)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협의에 의거한 납세신고 제도인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자문 서비스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 전체 진행 건수의 약 40% 이상을 수임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분류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2년간 약 500억 원 환급이라는 탁월한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어려움에 처한 고객이 먼저 삼정KPMG 관세팀을 찾아오는 등 대내외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태주 상무이사

Tel. 02-2112-7448 / E-mail. taejookim@kr.kpmg.com



최고의 전문성으로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삼정KPMG 관세팀

‘삼정KPMG 관세팀’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 ① **관세조사**: 관세당국은 수출입 기업의 과세가격, 품목분류, 감면, 환급 등 8대 항목의 적법여부 및 관련 의무 수행여부 등을 조사하며, 이런 관세조사 수검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위험진단 및 대응방안 마련, 소명 의견서 작성 그리고 조사관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 만족도가 높은 관세조사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 ② **관세불복**: 관세당국의 위법 내지 부당한 과세처분 등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물 수집, 불복청구 의견서 작성, 관세심사위원회 내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 재결청과의 커뮤니케이션 진행 등 기업의 관세불복청구를 대리한다.
- ③ **과오납 환급**: 관세평가, 품목분류, 수출환급, 부과징수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품목분류 변경 환급, 과세가격 감액 환급 등 관세 전문분야에 많은 과오납된 세액을 환급 받은 성공사례를 창출하면서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 ④ **과세가격사전심사(ACVA)**: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 가격결정 방식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상호인정 합의하는 제도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ACVA 자문을 통한 위험관리로 안정적인 관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 ⑤ **AEO**: 기업의 AEO 인증, AEO업체 정기 수입세액정산자문, 종합심사 지원, 연례보고서 작성 등 AEO 공인 받은 업체의 종합적인 인증 관리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⑥ **FTA**: FTA 원산지 조사 대응 및 불복청구, FTA 관리시스템 구축, 품목분류 교육사업 지원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⑦ **외환 조사**: 외환조사 수검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른 사전 위험진단 및 대응방안 마련, 외환실질검사 대응, 조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좋은 약이 아니면 만들지 마라!’

제약보국(製藥保國)을 실천하며 121년을 국민과 함께 한 제약회사 동화약품

동화약품은 1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초의 제약기업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활명수(活命水) 역시 121년 전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양약이다. 제약보국의 기업이념으로 탄생한 민족기업 동화약품은 여전히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임직원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새로운 120년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생명(命)을 살리는(活) 물(水), 활명수(活命水)의 탄생

동화약품은 지금부터 121년 전인 1897년 9월 25일 궁중 선전관 출신의 노천 민병호 선생이 동화약방을 설립하면서 탄생했다.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약 한 달 전이었다. 한의학에도 정통했던 민병호 선생은 궁중비방에 서양의학을 접목시켜 활명수를 개발했다. 민병호 선생이 제1호 양약으로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뜻의 ‘활명

수(活命水)’를 개발한 것은 마땅한 약이 없어 급체와 토사곽란만으로도 죽어가던 이들이 많던 당대 민중들에게 꼭 필요한 약이 활명수였기 때문이다. 당대에 활명수는 ‘소화제’가 아니라 만병통치약 취급을 받았다.

‘생명’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겠다는 제약보국의 경영이념은 동화약품의 탄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동화약방의 초대 사장인 민강 사장은 활명수를 팔아 독립운동자금을 대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는 동화약방 사무실을 상해임시정부의 비밀 연락기관인 ‘서울 연통부’로 활용하다가 발각되어 수차례 옥고를 치르다 병사(病死)하기도 했다. 경영이 어려워진 동화약방을 민씨 일가로부터 인수한 제5대 사장 보당 윤창식 선생 역시 일제강점기 ‘조선산직장려계’ 총무 등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경험이 있는 민족기업가였다.

활명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화제이다. 연령과 성별, 세대를 초월하여 ‘활명수’를 모르는 국민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2017년 현재 활명수는 연간 약 1억 병 생산, 판매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 85억 병



이 판매됐다. 활명수 외에도 가스활명수, 미인활명수, 꼬마활명수 등 다양한 일반의약품이 개발, 판매되고 있고,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인 가스활과 미인활까지 합하면 총 6종의 활명수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활명수의 정신은 현재까지 계속되어 동화약품은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와 콜라보레이션하여 만든 120주년 활명수 기념판 등 다양한 종류의 활명수 기념판을 매년 제작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전 세계 물 부족 국가에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21년 R&D 기술력으로 블록버스터 제품 다수 보유

동화약품은 황명수 외에도 대한민국 소비자라면 누구나 경험해 본 일반의약품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연간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상처치료제 후시딘, 감기약의 대명사 판콜, 그리고 치약형 잇몸치료제 잇치 등 121년 동화약품의 R&D 기술력으로 탄생한 많은 제품들이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전문의약품도 개발, 판매하고 있다. 국산 신약 제23호인 퀴놀론계 항생제 자보란테(Zabofloxacin)는 국내를 넘어 중동, 북아프리카, 중국 등에서 라이선스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스타, 소염진통제 록소닌, 조현병 치료제 클자핀, 이뇨복합제 라코르, 복부통증 치료제 메녹틸 등을 다양한 전문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 다수의 R&D 파이프라인도 보유하



여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글로벌 동화, 행복한 동화

동화약품은 안정된 조직 운영과 검증된 영업력을 바탕으로 사노피, MSD, 화이자, GSK 등 글로벌 다국적사들과 제휴를 맺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Co-Promotion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 선진국 수준의 혁신적인 신약개발 역량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료의약품 및 완제품을 전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하면서 '글로벌 동화'의 역량과 전문성을 지속 제고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철학 아래 업계 최고 수준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시공간초월근무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 ‘AAFW(Any Time - Any Place - 40(Forty) Hour Equivalent - Workweek,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당 40시간 상당의 근로시간을 충족시키면 근태가 인정되는 제도) 제도’는 동화약품만의 고유한 근무제도로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AAFW 제도를 시행하면서 임직원들의 근태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있다. 출산/육아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탄력적 출퇴근 제도도 적극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임직원들이 월 1회 함께 문화공연 등을 관람하는 ‘동화누리’, 자기계발과 지식경영 실천을 위해 매월 1회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동화특강’ 등 다양한 제도의 실천을 통해 동화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18년 국내외 경제 트렌드에 주목하라!

2018년 국내외 10대 경제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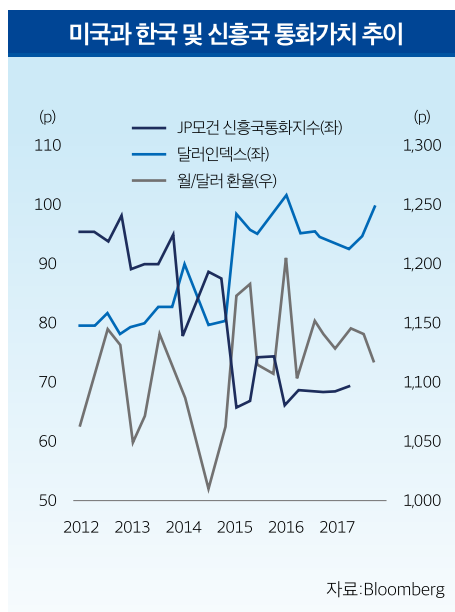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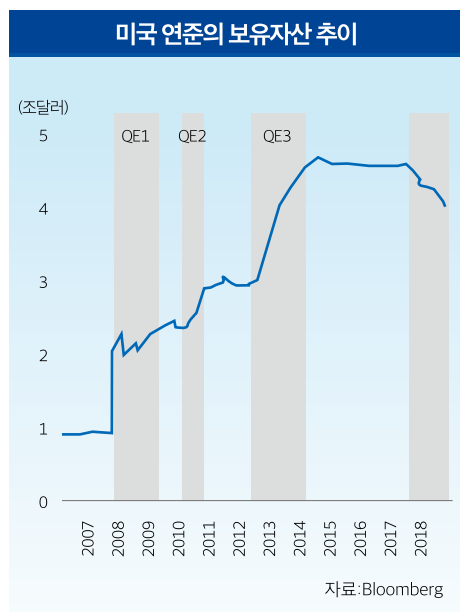
세계	① 미국 보유자산 축소, 긴축의 시대로 전환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긴축정책 도입
	② 신흥국 자본 유출입 방향	세계 긴축정책 도입에 따라 신흥국 자본 유출 영향
	③ 중국 경제 '회색 코벨소'가 온다	그림자금융을 비롯한 중국경제의 3대 불안요인
	④ 유럽의 결속력 약화 가능성	브렉시트의 경과 및 카탈렉시트(Catalexit) 등의 영향
	⑤ 글로벌 교역환경의 지각변동	FTA 폐기 및 재협상, RCEP 등 권역별 FTA 협상
한국	⑥ 북핵리스크 고조와 국가신용도 유지	전쟁 가능성이 고조됨에도 한국 국가신용도 지속
	⑦ 기준금리 인상할 것인가?	경제회복세 지속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고조
	⑧ 부동산 시장 잡힐 것인가?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
	⑨ 2018년 이슈들로 둘러싸인 가계부채	기준금리, 부동산 정책,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하위 이슈와 밀접
	⑩ 'J-nomics'의 본격화	소득주도성장,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산업 육성 등 본격화

2018년 세계 경제... 메가(Mega) FTA 시대의 도래

첫째, 세계가 주목하는 2018년의 가장 중대한 이슈는 '미국의 보유자산 축소와 긴축의 시대로 전환'이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 정책과 함께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2015년 말 이후부터는 정책금리를 4차례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시행해왔다. 미 연준은 2017년 10월부터 보유자산을 축소를 시작했으며, 연중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간 지속해온 저금리·유동성의 시대가 끝나고 금리상승·긴축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다.

둘째, 신흥국들의 자본 유출입 방향이 세계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미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흥국들은 자본유출 압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보유자산이 크게 늘었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선진국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반대로 신흥국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신흥국에 집중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한국 경제는 다양한 경제적 이슈로 둘러싸여 있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은 2018년에 펼쳐질 주요 경제 트렌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보다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Channel> 1월호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2018년의 이슈를 미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함께 2018년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경제 이슈에 대해 알아봤다.



셋째, 중국 경제의 4대 위협요소를 가리키는 ‘회색 코뿔소(grey rhino)’가 상당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리스크를 의미하는 ‘블랙 스완(black swan)’과 달리,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를 말한다. 중국의 3대 ‘회색 코뿔소’ 리스크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부동산 버블, 기업부채 부채가 있으며,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넷째, ‘유럽의 결속력 약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결정으로 결속력 약화가 우려되었던 EU 체제는 2018년에 상당히 위태위태한 형국에 들어설 전망이다. 2018년에는 영국이 EU로부터 본격적으로 독립하는 시점이고, 영국이 성공적인 모델로 비춰짐에 따라 그 밖의 EU 회원국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2018년에는 ‘글로벌 교역환경의 지각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 FTA 개정 재협상을 제안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또는 탈퇴 절차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 것인지에 따라 자동차, 철강 등의 몇몇 업종의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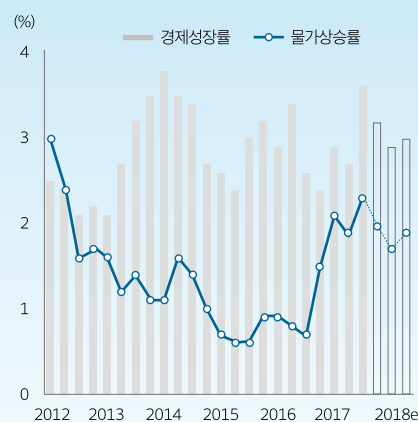
한편, 2018년에는 메가(Mega) FTA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등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 2018년 한국 경제, J-nomics의 본격화

첫 번째 이슈는 '북핵리스크'다. 북한의 도발은 과거에 비해 회수가 빈번해지고 강도도 커지고 있다. 북한은 2017년 5월, 11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9월에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UN 총회에서 미국과의 설전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는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북한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 무디스(Moody's), 피치(Fitch) 등 주요 신용평가 기관도 최근 한반도 내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면서 기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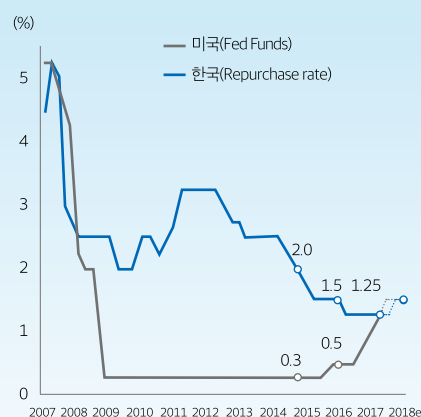
둘째, 2018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큰 질의는 '기준금리 인상할 것인가?'이다.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는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 목표치인 2.0%에 부합하는 수준이고, 수출, 소비, 투자 등의 지표도 모두 기준금리 인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건실한 성장세'에 부합한 상황이다. 2018년에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의 간격이 좁혀지거나 역전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금리인상 경계감이 증폭되고 있다. 2018년 기준금리 인상 여부, 이에 따른 파급 영향 등은 한국 경제의 중대한 이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최근 추이 및 전망



자료: 국제금융센터

셋째, 2018년의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 될 전망이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분양대상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유도하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들을 제시했다. 2018년에는 가계부채 대책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들이 공표될 예정이다. 일각에는 보유세 인상론을 주장하거나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2018년 들어 강도 높은 정책들이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고, 기준금리 인상 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어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가계부채 규모는 약 1,419조 원(2017년 3분기 기준)을 넘어섰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보다 빠른 것이다. 가계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도 2002년 113.8%에서 2004년 103.4%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151.1%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소비 여력이 축소되는 등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섯째, 'J-nomics의 본격화'는 2018년 한국 경제의 시작과 끝을 함께할 전망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정부, 기업, 가계 각 경제 주체들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슈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틱스 등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투입하고, 해당 분야 인재양성에 주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 경제 주체들이 노력하고 있다.

| 2018년 국내외 이슈에 따른 기업들의 대책

2018년에는 상당한 기회와 위협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2018년에 펼쳐질 위협요인들을 미리 대비하고, 기회요인들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기업이 2018년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환율 변동성이 급등하고, 국제유가 기조가 변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유럽시장 진출 전략의 변화 및 유연한 FTA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영국의 EU 독립 후 한국은 한-영 FTA를 추진하거나, 한-EU FTA의 조항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한-미 FTA 개정 재협상 등에 조기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경우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이라든가, RPA(Robot Process Automation) 도입 등에 따라 기존 인력들을 다른 업무로 재배치할 때의 정책지원 등을 주지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2018년 경영전략 기획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지원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기회와 위협이 상존하는 2018년 경제여건 하에서, 미리 대비하는 기업만이 2018년 한해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CONTACT US

삼정KPMG 경제연구원

김광석 수석연구원

Tel. 02-2112-7438

E-mail. gwangsukkim@kr.kpmg.com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 보안 전략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난 2017년 KPMG 글로벌이 진행한 전 세계 CEO 대상 설문조사에서 '사이버 보안'이 미래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꼽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사이버 비즈니스 영역의 확장과 동시에 사이버 보안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이버 보안 리스크와 이에 따른 준비 방안은 무엇인지 삼성KPMG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 그 답을 구했다.



삼성KPMG 사이버 보안팀
김민수 상무

Q.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A.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인문·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받아들여집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4차 산업혁명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 공장'입니다. 이 진화된 생산 체계는 기존 제조 현장의 부분 자동화 단계를 넘어 파괴적 신기술을 적용한 광범위한 자동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구현시키는 기반 인프라에는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로봇, 3D프린터, 가상현실 등 최근 5년 내 급격히 상용화된 신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의 공통점은 네트워크(인터넷)에 연결돼 사이버 비즈니스를 현실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해 인공지능과 IoT가 연동돼 영업·구매·생산·품질·물류 등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 사이버 리스크는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A.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리스크가 사이버상에서도 존재합니다. 사이버 약탈(개인정보 탈취), 사이버 부정 및 사기(피싱), 사이버 감염(악성코드), 사이버 납치(랜섬웨어) 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괴적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사이버상에서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현실 세계에서의 피해 또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커와 같은 사이버 공격자들이 제조 회사의 내부 정보 탈취를 넘어 품질관리 시스템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의 어떤 기업은 해킹공격으로 하자 제품을 거르지 못한 채 시장에 유통시켜 수십억 달러의 잠재적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업은 고객과 이용자에게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넘어서는 사이버 보안 활동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사이버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대부분의 조직이 방어 우선식 대응을 채택해왔지만 더는 변화된 환경에서의 사이버 보안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보안관리 방식은 장기적 기업 성장에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기업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A. 국내 기업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을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해 봅니다. 첫째, 조직의 전략적 비전 달성과 지원을 위해 '비즈니스에 특화된 사이버 보안 로드맵' 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조직 맞춤형 사이버 리스크 대응을 위해 '자사 보안 역량의 전략적 평가'를 냉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위협, 특히 'IoT 관련 리스크의 보안 책임 및 대책'을 명확하게 수립 또는 재정비 해야 합니다. 2000년대 정보기술(IT)을 비롯한 신기술 도입에 앞장섰던 시대와 달리 현재의 한국은 4차 산업의 진입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4차 산업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진이 선제적으로 임할 마지막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맛있는 경제>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를 모은 시사 상식을 살펴보는 칼럼이다.
2018년 1월호에 첫 소개되는 시사 용어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캘리차이나(Calichina)

캘리포니아와 차이나의 합성어로,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와 중국 선전이 융합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중국 선전에서 이를 프로토타입으로 실현해 보는 산업 연계망이다. 선전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든 스타트업들은 이를 다시 실리콘밸리로 가져가서 투자를 받기도 한다. 선전은 1979년만 해도 작은 어촌에 불과했으나, 개혁개방의 흐름에 따라 급성장한 끝에 현재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에어버스의 혁신센터다. 항공기 회사 에어버스는 본사가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데도 첫 번째 혁신센터는 실리콘밸리에, 두 번째 혁신센터는 중국 선전에 둘 예정이다. 이외에도 IT 기업 애플과 곡물 기업 카길 등 모든 산업이 캘리차이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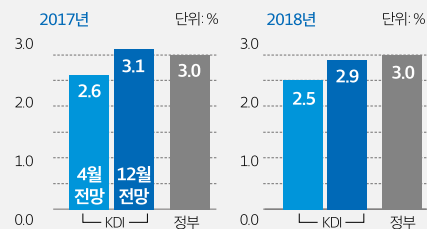
지난 11월 30일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샌드박스(Sandbox)가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처음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적용 받지 않도록 유예하는 제도이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게 시초이다.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의 첫 적용대상으로 블록체인과 드론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해 42억 원을 투입해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드론 시범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2018년 한국 경제성장을 2.9%로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7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의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투자는 둔화될 것이라며 2018년 성장률을 2.9%로 내다봤다. 이는 앞서 KDI가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는 2.5%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것에 비해 0.4%p 높여 잡은 수치다.

KDI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행복한 일터

Culture Relay

Hello! 2018

인재양성소

KPMG Tour

Culture & Etiquette

KPMG Story

Samjong News



행복한 우리 본부 문화를 소개합니다! 노력을 멈추지 않은 에너지틱한 BCS-ICG본부

에너지틱(Energetic) 하면 가장 핫한 아이돌 Wanna One의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삼정KPMG에서 에너지틱은 BCS-ICG본부를 떠올리게 한다. BCS-ICG본부는 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에너지틱한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틱함으로 뚝뚝 뭉친 BCS-ICG본부만의 특별한 문화 활동을 소개한다.



1. BCS-ICG본부원이 소규모로 모여 활짝 웃음 짓는 모습 2. 이성친구가 생긴 본부원에게 건네는 영화 티켓 3. 친목 모임으로 화합을 다지는 BCS-ICG본부

본부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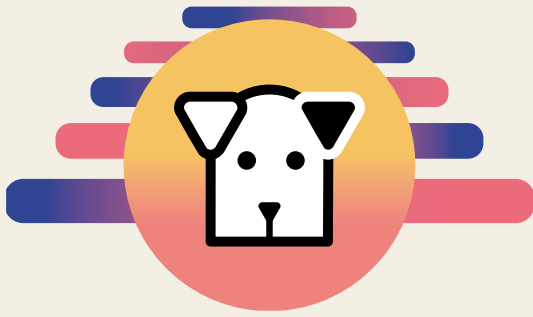
에너지틱한 BCS-ICG본부는 본부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행복을 배로 증폭시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성 친구가 생긴 본부원에게 영화 표를 선물로 전하며, 축하한다는 것이다. PPC Officer인 김범조 이사는 “BCS-ICG본부는 대부분인 미혼인 젊은 본부예요. 기혼인 경우 결혼, 출산 시 선물을 전하며 축하를 건넬 기회가 많지만, 미혼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사실 많이 부족해요.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다 미혼인 본부원에게 가장 기쁜 일에 해당하는 연애를 응원해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었어요.”라고 웃음 지었다. 이거훈 컨설턴트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본부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주고 축하해주는 것 자체에 감동을 느꼈어요. 특히나 영화를 보며 여자친구와 추억을 쌓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애사심이 더 깊어졌어요.”라며, 건강한 본부 활동을 만들고 좋은 문화로 정착하도록 힘써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SNS보다는 Face to Face 소통으로! ★★

BCS-ICG본부는 과감히 SNS 소통보다 대면 소통으로 친목 도모에 힘쓰고 있다. 사실 초반에는 본부원끼리 SNS를 활용하여 소통해왔지만, 문제는 퇴근 후였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단체 채팅방에서의 대화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다가왔고, 이는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아진 것. 이에 자연스럽게 SNS 소통을 지양하게 됐고, 그 대신 본부원 간의 소통을 위해 친목 모임을 추진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이동희 컨설턴트는 “한 예로, 김범조 이사님의 제안으로 월 1회 농구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들 뭔가 약간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일 때문이라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아쉬워해요. 본부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같이 일할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라며 다양한 본부원 간의 소통이 협업의 힘이라고 전했다.

장현국 본부장이 전하는 한 마디!

“예전에 유행하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대신 ‘저는 소통이 먼저다’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본부 내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본부원과 본부의 경쟁력입니다.”



황금 개띠 삼정인들의 2018년 롤모델은 누구?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 개띠, 무술년의 해가 밝았다. 신년 호에서는 82년, 94년 개띠 삼정인을 만나 2018년 이루고자 하는 새해 목표와 이들이 닮고 싶은 롤모델은 누구인지 들어보았다. 황금 개띠 삼정인이 정한 롤모델 누구일까?

롤모델은 사랑하는 어머님과 장모님! 두 분의 가르침으로 항상 노력할 것

저에게는 살면서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회계사 합격자 발표를 하는 날, 어머니와 통화하던 제 모습과 그 상황,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축하해, 아들. 고생했어. 근데 친구들은 다 합격했니? 그렇지 않다면 너무 기뻐하지 말고 친구들과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 고되고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저에게 항상 겸손함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르치셨고 몸소 실천하셨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존경하는 분이 결혼과 함께 생겼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주시는 장모님. 제 손을 꼭 잡으시고 했던 그 따뜻한 말씀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두 어머니의 가르침을 회사나 가정에서 실천하려고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어머니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진욱 S.Manager (Global Tax)



함께 일하는 삼정인 분들이 제 롤모델입니다! 롤모델의 장점을 배우고 닮아가며 성장해가겠습니다

2018년 제가 가장 닮고 싶은 롤모델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삼정인입니다. 이번 황금 개띠 인터뷰에 참여하며, '나에게 롤모델이 누구지?'라고 자문하며, 눈앞의 일과 이슈만 쫓다 목표도 없이 살아온 것은 아닌지 잠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2010년 입사 이후 매년 함께 일하는 분들을 보고 배우고 감동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급을 초월하는 스태프의 업무 결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Assign, 인간적인 팀원 관리 및 무한신뢰, 큰 그림 안에서 고객사 내 정무적 판단에 근거한 고객대응 등 제 주변의 롤모델들의 장점만 모아 2018년에도 크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웅 Manager (IM4)





김용 총재의 리더십과 호소력을 닮아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저의 2018년 롤모델은 세계은행그룹의 김용(Jim Yong Kim) 총재입니다. 김용 총재는 사실 금융전문가가 아닌 인류학자이자 의사인데요, 본인의 전문 영역을 뛰어넘어 세계은행의 다양한 분야와 지역 전문가를 아우르는 그의 리더십,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를 설득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그의 호소력이 매우 근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 총재의 리더십과 호소력을 닮고 싶기에 롤모델로 선정했습니다. 김용 총재는 세계은행이 'Honest Broker & Strategic Advisor'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KPMG가 강조하는 'Trusted Advisor'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새해에는 리더십과 호소력을 겸비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고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현 Manager (BCS-CCS)

국민 MC 유재석이 바로 롤모델 MC 유의 책임감을 닮아 맡은 업무를 충실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유재석'입니다. 프로그램 속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프로그램에 대한 그의 책임감을 항상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저는 유재석을 롤모델로 삼아 그의 이 책임감을 닮고자 합니다.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올해 참여하게 될 프로젝트 모두가 저에게 낯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더라도 항상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김정연 Analyst (Deal Advisory2)



존경하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갈래요~!

제 롤모델은 존경하는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는 입사한 지 이제 만 1년이 넘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 일 외적으로는 신경을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가정도 돌보는 등 많은 책임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도 인생의 각 부분에서 주어지는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과 동시에 항상 부모님께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신년에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권민경 Consultant (MCS1)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꿈을 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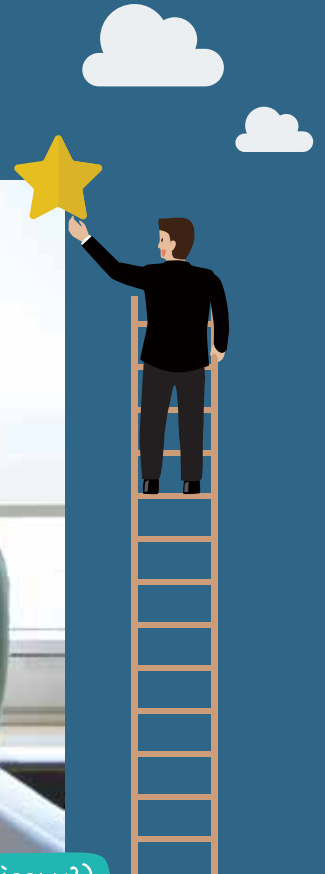
재능기부 활동으로 인재 성장에 앞장서는 삼정인



이재용 Manager (CM)

박혜민 Consultant (MCSI)

김윤원 Analyst (Deal Advisory?)



꿈을 Dream Project의 시작

이재용 2010년부터 입사하여, 외부감사 업무를 담당해오다 2016년 기업교육팀에서 일반 기업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 업무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꿈을 Dream Project가 처음 시작할 때였고, 당시 L&D본부에 소속된 저는 창립 멤버로 경제교육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꿈을 Dream Project가 L&D본부와 PPC의 협업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어 경제교육을 위한 교재를 만들게 되었고, 현재까지 5개의 중학교 학생들을 만나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꿈을 Dream Project 외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진행하는 마포구 지역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직업 특강 교육도 진행하고 있어요. 마치 중학생 담당 회계사가 된 기분이에요.

김윤원 저는 대학생 때 가끔 봉사 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껴왔었던 터라, 법인에 입사한 후 사랑나눔 활동에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틈틈이 제과제빵 봉사, Toy-Soap 만들기 봉사를 해오다, 꿈을 Dream Project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현재 두 차례 재능기부 활

동에 참여했는데요, 학생들을 만나며 꿈과 비전에 대해 소통하고 대화하다 보니 저도 긍정 기운을 얻게 되더라고요.

박혜민 저는 어릴 때부터 꿈과 진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볼 기회를 갖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중학생들과 함께 왜 꿈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지, 본인의 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꿈과 진로는 어떤 관계인지 등 꿈과 진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되려 순수한 열정으로 꿈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을 보며, 저 스스로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가르침을 통해 배움을 얻은 시간

김윤원 재능기부 활동을 하면서 일상에서 접하는 회계 관련 개념을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해줄 수 있어 뿌듯해요. 뿐만 아니라 순수하고 밝은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항상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삼성KPMG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꿈·진로 및 경제교육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름하여, ‘꿈을 Dream Project’이다. ‘꿈을 Dream Project’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는 재능기부 삼성인을 만나봤다. 청소년들의 멘토로, 건강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이들의 스토리에 귀 기울여보자.



꿈을 Dream Project 현장 모습

요.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 잘 몰랐는데 지금은 진지하게 회계사라는 직업을 고민해보고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아 놀라웠고, 이런 학생들에게 회계사의 장점과 역할을 소개해주면서 저 역시 회계사라는 일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박혜민 꿈을 Dream Project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고민할 계기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강을 이끄는 삼성인 분들에게 꿈에 대한 열정을 불어 넣어줄 life-changing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현재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며 꿈을 향한 길목 위에 있는지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때문에 많은 삼성인들이 참여하셔서 학생들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셨으며 좋겠어요.

이재용 저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인생의 작은 점(예를 들면 대입, 취업 등) 하나를 두고 속도 경쟁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건강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어른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꿈을 Dream Project는 겨우 한두 시간 동안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지만 그 만남이 어떤 학생에게는 인생을 바꿔줄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가르치는 사람이 학생보다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하지요. 회계사로서 살다 보면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해보시면 분명히 뿌듯함과 함께 전문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거라고 확신해요.

꿈을 나누는 삼성인이 희망하는 미래

김윤원 입사 후 지금까지 Deal Advisory3본부에서 즐겁게 배우면서 일하고 있고, 본부 내에서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님들이 바쁘지 않을 때 꿈을 Dream Project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앞으로 맡은 업무를 할 때는 열심히 배우고 법인에서 진행하는 뜻깊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이 되고 싶어요.

이재용 저는 회계사로서 강단에 서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강단에 서보면 느끼는 것이 ‘결국, 강단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그 영역에 통달한 진짜 전문가만이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돼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지 않은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울림을 주기 어렵거든요. 앞으로 삼성KPMG에서 회계사로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성장하여 그것을 어떤 기회로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박혜민 저는 2016년 11월 삼성KPMG에 입사하여 금융기업을 상대로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3~5년간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영 컨설턴트로서의 Key Capabilities를 배양하는 데 집중하여 능력 있는 컨설턴트로서 성장하고 싶어요. 또, 장기적으로는 내가 속한 조직의 직원들이 궁극의 몰입을 통해 자신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실현하고 동시에 조직 공동의 목표를 함께 성취하는 조직의 리더가 되고 싶네요.



CM본부 박소은 Associate가 전하는 캐나다 캘거리 & 밴프 여행기 로키 산맥의 절경을 느낄 수 있는 캐나다 캘거리!

캐나다에서 토론토와 밴쿠버에 이어 큰 규모의 도시인 캘거리. 박소은 Associate는 지난해 여름 남편이 살던 곳인 캐나다 캘거리(Calgary)와 밴프(Banff)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이번 호에서는 박소은 Associate가 여행 전 알지 못했던 캘거리와 밴프만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삼정인에게 들려준다.

캐나다 캘거리 & 밴프 여행 코스

캘거리 국제공항> (캘거리 타워/캔싱턴/스티븐 애비뉴 워크/캔싱턴)> 캐나다 올림픽 공원> 캘거리에서 밴프 타운 도착> 설퍼산> 레이크 루이스
(차로 1.5시간)

남편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 캘거리

캐나다 알버타 주 남부 지방의 고원 지대, 로키 산맥으로부터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캘거리. 여러 겨울 스포츠와 환경 친화적인 산업, 관광 그리고 로키 산맥의 높은 산들로 유명한 도시로, 로키 산맥으로부터 치누크(Chinook: 산맥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바람)가 불어와 겨울에도 때때로 기온이 상승하기도 한다.

2017년 8월 여름 캐나다 캘거리로 여행을 나섰다. 남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남편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8월에 떠난 여름 여행 치고는 11월의 느낌을 받은 춥고 생소한 도시였던 캘거리는 여행을 준비하면서도 그저 그런 도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간 머무르며 만난 캘거리는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여행지였다.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밴프, 핫한 펍, 캐나다인 음악, 미식을 자극하는 레스토랑, 이 모든걸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캘거리 & 밴프 볼거리 TOP 3

① '캘거리 다운타운'에서 즐기는 캘거리 전경과 쇼핑!

캘거리 알버타 주의 관문도시인 캘거리로 여행을 하게 된다면 캘거리 다운타운은 꼭 한번은 들려야 하는 곳이다. 캘거리 다운타운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멀지 않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캘거리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캘거리 타워**(Calgary Tower)는 캘거리에 가면 필수로 들려야 하는 곳이다. 확 트인 캘거리의 모습과 멀리 로키 산맥의 고봉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음은 물론이고, 투명한 유리 아래로 보이는 아찔한 경험도 체험할 수 있다. **스티븐 애비뉴 워크**는 캘거리의 명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옷 가게와 맛집이 모여 있는 쇼핑거리이다. 걸으면 15~20분 정도 걸리는 많이 길지 않은 거리이다. 아홉 개의 대형 쇼핑 센터와 부티크, 갤러리, 공연 예술 공간과 고급 레스토랑, 펍, 카페가 입점된 캘거리 유일의 보행자 전용 상업지구로, 캘거리 사람은 물론 여행자로 언제나 붐비는 만남의 장소이다. **캘거리 다운타운** 중에서도 많은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몰려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핫한 곳이 있다. 캘거리의 흥대라고 불리는 작지만 문화예술의 기운이 넘치는 곳 켄싱턴은 캐나다의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맛있는 식사와 함께 젊은 현지인들의 문화를 엿볼 수도 있는 곳이다.



'동화 속에 나오는 도시'라고 한다. 그만큼 자연과 잘 조화되는 도시 설계가 인상적인 도시인 것이다. 밴프의 중심이 되는 밴프 애비뉴의 아기자기한 타운을 걷다 보면 실제로 평생 꼭 한번쯤은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

③ 로키 산맥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설퍼산'

1885년 캐나다 최초로 유황온천이 발견된 **설퍼산**은 밴프 시가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유황 온천욕을 즐기거나 곤돌라를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산이다. 곤돌라를 타고 해발 2,000m가 넘는 아찔한 높이의 설퍼산 정상에 8분 만에 오를 수 있으며, 정상에 오르면 360도 파노라마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 로키 산맥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또한, 정상에 레스토랑이 있어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식사할 수 있는 짜릿한 경험도 할 수 있는 곳이다.

추천 먹거리! 캐나다 감자 요리 '푸틴'

캐나다의 매우 인기 있는 요리로 전통 요리가 사실상 전무한 캐나다에서 자국 요리라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캐나다 퀘벡 지방의 감자 요리로, 푸틴이라 불린다. 기본적으로



프렌치프라이에 치즈커드를 끼얹고 뜨거운 그레이비 소스를 마구 뿌리면 완성되는 쉬운 요리다. 캐나다에서는 주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나 식당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국 이태원에도 판매하니 캐나다의 전통요리를 미리 맛보고 싶다면 이태원 캐나다 펍에 가보길 바란다. 또한 캐나다의 국민커피 '팀홀튼' 카페에 들러 커피를 비롯해 도넛, 버거, 파니니, 웨지감자 등 다양한 메뉴도 즐겨보길 추천한다. 캐나다 어느 시내에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만큼은 스타벅스보다는 팀홀튼의 커피가 인기가 높다.

② 동화 속에 나오는 도시 '밴프 타운'

밴프 타운은 해발 1383m의 고지에 자리잡은 타운으로 주위의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북쪽의 재스퍼와 함께 캐나다인 로키 산맥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이며 하이킹, 온천, 래프팅, 승마, 스키 등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밴프시는 넓지 않아서 걸어서 돌아볼 수 있다. 밴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박소는 Associate가 전하는 캐나다 여행 꿀 Tip

1. 캐나다는 팁의 문화다.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 계산서의 10~15% 정도의 팁은 기본이다. 캐나다는 인력이 비싸고 사람 손이 닿으면 이에 대한 서비스를 지불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팁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면 된다.

2. 여름에 와도 캘거리는 여전히 춥다. 캘거리의 날씨는 8개월간 추운 날씨를 가지므로, 웬만한 한여름에 여행을 해도 겹옷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3. 캘거리에서도 많은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지만, 건물들의 간격이 넓고 도로가 크기 때문에 와이파이기가 많이 잡히지는 않는다. 인터넷 접속에 지장 없이 편안한 여행을 하고 싶다면 미리 와이파이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북아메리카 남서부의 거대한 나라, 멕시코의 문화와 에티켓

북쪽은 미국, 남동쪽은 벨리즈, 과테말라와 국경을 접하는 멕시코. 마야, 아스텍 문명 등을 꽃 피웠던 나라로 1521년부터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1821년 독립했다. 이에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K-POP에 흥미를 지녀, 우리나라와 문화 교류가 꽤 높은 나라이다. 이번 호에서는 김태우 이사가 멕시코 Korea Desk에서 생활하며 느낀 멕시코만의 문화와 에티켓을 소개한다.

미국과 가까운 나라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문화가 있는 곳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게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산업의 대부분이 수출주도형 산업이고 수출의 90% 이상이 미국과 캐나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도 최대교역국인 미국의 언어, 문화와 예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멕시코의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려 노력한다는 인상을 매우 강하게 받습니다.

이는 언어에서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 통치를 받은 후 전수된 언어인 스페인어를 유지 발전시키기 때문에 국제 비즈니스 업종을 제외하곤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스페인어 사용만 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식당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조차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면 소통하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멕시코 파견 초반에 음식 주문 시 손짓 발짓하며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음악의 경우 미국 팝송이나 유럽의 클래식보다도 멕시코 마리아치(Mariachi)와 같은 전통음악이 여전히 대중음악으로 모든 멕시코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을 중시하는 사회,

직장에서도 가족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으로

90% 이상의 멕시코인이 가톨릭교를 믿고 있는 이들은 매우 가족 중심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 직장에서도 가족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퇴근 후 직원 간의 회식과 팀워크 활동은

이것만은 꼭! 멕시코 Etiquette Plus+



1 첫 만남이 아닌 경우 멕시코인들은 대부분 남녀 간 그리고 여성 간에 뺨 인사를 합니다. 뺨 인사를 하지 않을 경우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진중한 비즈니스 관계를 위해서는 뺨 인사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과거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영토(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텍사스주)를 빼앗긴 경험이 있고 최근 정치적인 불협화음이 있어 미국을 과도하게 옹호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합니다.



1.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답게 학년별 축구팀이 2개 이상 운영되는 멕시코 2. 축제처럼 즐기는 멕시코 결혼식의 모습 3. 멕시코 리그 경기를 관람하며 찰칵!

사전에 일정을 정해야 가능합니다. 심지어 근무시간 중에도 자녀 학교행사가 있으면 부모가 모두 참석하며 주말에는 가족과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주말을 이용한 고객과의 친선 골프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에게 고객과 주말 친선 골프를 제안했을 때, 멕시코에선 고객과의 친선 골프 활동은 주중에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을 모두 꿰뚫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축구리그에서 결승전만 해도 출근 복장이 지지하는 팀 경기 복장을 입을 정도입니다.

한번은 고객과 함께 참여한 지역 연고팀의 경기에 결승전이나 준결승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이 만석이 된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멕시코와의 비즈니스에서 축구에 대한 관심을 함께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다른 축구 사랑, 멕시코인에게 축구는 제2의 종교

월드컵 축구의 영원한 우승 후보인 멕시코는 축구 인프라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아이들은 보통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축구공을 접하고 학년별 축구팀은 2개 이상 운영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멕시코인들은 우리나라 K리그와 같은 지역 연고팀의 경기 일정



CONTACT US

멕시코 KOREA DESK 김태우 DIRECTOR

Tel. +52 1 811 779 3684 E-mail. taekim@kpmg.com.mx

Global Etiquette



3 여성을 먼저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출입문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여성에게 순서를 양보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멕시코 Korea Desk

KPMG 멕시코는 멕시코 전역에 16개의 오피스를 두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한전KPS 등 대부분의 한국 기업에 감사, 세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orea Desk는 몬테레이에 소재하고 있으며 고객이 멕시코에 진입하고 안정화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정인이 소개하는 나만의 KPMG Story

2018년, 나에게 KPMG Story는 이다!

2018년 신년 특집으로 <KPMG Story>에서는 많은 삼정인들이 KPMG Story에 대해 어떤 정의를 내렸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KPMG Story 워크숍으로 KPMG Story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PPC Officer와 KPMG Story Agent를 대상으로 KPMG Story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This is KPMG and this is our story

18만 9천 명의 KPMG 구성원을 이어주는 우리만의 스토리가 바로, The KPMG Story이다. The KPMG Story는 우리가 왜 존재하고(Purpose), 어떤 가치 속에 일하는지(Value), 무엇을 지향하고(Vision), 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며(Strategy),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Promise)를 명확히 보여준다. The KPMG Story는 일상에서의 우리 행동과 중요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이 된다.



매년 함께 변화하며 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주기 때문이다. 2018년, 나는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삼정인과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것이다.

김현철 이사(Domestic Tax1)



왜냐하면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 모두의 열정과 노력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시우 이사(CM)

변화를 이끄는 힘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기에, 변화를 이끄는 힘으로 정의했다. 2018년 무술년에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KPMG Story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김낙원 S.Analyst (Deal Advisory4)

GRIT



KPMG Story는 나의 성장(Growth),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를 다시 회복 시켜주는 힘(Resilience), 내 삶의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Tenacity)를 준다.

2018년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나는 언제나 그랬듯 GRIT이라는 노를 저어 'The Clear Choice'를 향해 향해 할 것이다.

선상현 S.Senior (DPP)



왜냐하면 KPMG Story를 통해 삼정인 서로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나는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Open Communication을 바탕으로, Work Together 할 것을 다짐해본다.

김재훈 이사 (Deal Advisory1)

통일

통일은 이루기 힘들지만 꼭 이루고 싶기 때문이다. 또,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상대방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협업해 나갈 것이다.



한정우 Director (IGH)

나침반



KPMG Story는 개인과 조직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어떤 미래의 모습을 그려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KPMG Story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송희연 S.Consultant (MCS2)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의미 없는 일은 없으며, 그 일들이 모여 우리의 법인 Story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2018년 나는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내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2018년의 Story를 만들어 갈 것이다.

윤강민 대리 (PPC)

동반자



KPMG Story는 내 일상에서, 또 업무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삼정KPMG 가족들에게 KPMG Story를 공유할 것이다.

이상홍 S.Analyst (Deal Advisory2)

NEWS

삼성KPMG, 시무식 개최... 2018년 힘찬 출발!

1월 2일 삼성KPMG는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본사에서 시무식을 열어, 2018년을 힘차게 시작했다. 시무식에는 삼성KPMG 김교태 CEO 및 파트너들, 고문단 등이 참석해 'Vision 2020: The Clear Choice'를 위한 새 각오를 다졌다. 김교태 CEO는 "2017년에도 법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모든 삼성KPMG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2018년에도 불확실한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임무 앞에 스스로 움직이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리더들이 구성원들을 잘 이끌고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성KPMG, 2017 M&A 재무·회계자문 1위 기염**

삼성KPMG가 2017 기업 인수·합병(M&A) 재무자문과 회계자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연합인포맥스 외 다수 매체에서 발표한 '2017년 자본시장 리그테이블'의 재무자문 실적에서(회계법인 기준) 삼성KPMG는 5조3천806억 원의 실적으로 선두를 기록했다. 삼성KPMG는 베스타스자산운용의 프랑스 파리 소프트웨어플라자 매입, 독일 베를린 알리안츠 신사옥 인수 등 부동산 딜을 잇달아 자문하며, 1위를 달성했다. 또한, M&A 회계자문에서도 13조8천6억 원의 실적으로 최정상을 차지했다. 삼성KPMG가 유니레버의 카버코리아 인수, MBK파트너스의 대성산업가스 인수 등을 성사시키면서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2017년 M&A 재무·회계자문 모두 1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M&A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KPMG International, FY17 IAR 발간

KPMG International은 FY17 IAR(International Annual Review)을 발간했다. KPMG는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모하면서 큰 성장을 이뤄왔고, 이를 바탕으로 FY17 회계연도 매출 총 26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FY16보다 5% 증

가한 수치이다. KPMG International 빌 토마스 회장은 "우리는 현재 고객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도전으로 해석되는 기술 및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감사, 세무 및 자문에 걸쳐 의미 있고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또, 우리는 공익 책임을 다하고 고객 및 자본 시장을 위해 수행되는 중요한 업무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PMG International이 발표한 FY17 IAR은 삼성KPMG 홈페이지(www.kr.kpmg.com)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KPMG, 데이터분석 및 인공지능 통합한 '스마트 감사 플랫폼' 개발

KPMG International은 업계 최초로 데이터 분석(D&A)과 인공지능(Cognitive Technology)을 통합해 심층적이고 통찰력 있는 회계감사를 제공하는 스마트 감사 플랫폼 'KPMG 클라라(Clara)'를 개발했다. KPMG 클라라는 KPMG의 기존 회계감사 프로그램(eAudit)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화, 시각화 등의 심층적인 분석기능을 극대화해 높은 감사품질을 실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KPMG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간 감사 진행 사항 및 이슈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KPMG 클라라 대시보드를 280여 개 상장사 감사팀에 적용했다. 전수 회계처리 분석 기능도 2017년 회계감사부터 파일럿으로 적용한다. 또한,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3년 후에는 모든 회계감사 대 상회사에 KPMG 클라라를 적용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삼정KPMG,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최다 배출

삼정KPMG가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종합평가시험’에서 Big4 중 가장 많은 성적우수자를 배출했다. 지난 12월 11일에 열린 한공회 창립 제63주년 행사에서 ‘한공회 실무연수 종합평가시험 시상식’이 개최됐다. 본 시상식은 수습 공인회계사 1년 차 기본실무 및 2년 차 외감실무, 각 시험에서 상위 10등을 기록한 회계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삼정KPMG는 총 8명의 성적우수자를 배출했다. 1년 차 기본실무에는 ▲조지훈(JP) 회계사가 전체 1위로 최우수상을, ▲문성균(B&F1) ▲송영진(ICE1) 회계사가 전체 공동 2위로 우수상을, ▲김원기(B&F1) 회계사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2년 차 외감실무에는 ▲오종면(B&F2) ▲박예지(Deal Advisory2) ▲정익형(IM3) ▲박병래(Domestic Tax2) 회계사가 장려상을 수상하며 법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삼정KPMG ITC본부 김태주 상무, 관세청장 표창 수상

지난 12월 27일 부산세관에서 개최된 세정 협조 부문 포상 수여식에서 삼정KPMG ITC본부의 김태주 상무가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태주 상무는 “고객과 과세관청 사이에서 모두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중재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관세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후배 관세사들과 함께 고객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인정받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사랑나눔

삼정KPMG, 헌혈 봉사로 생명 나눔에 앞장서

삼정KPMG는 지난 12월 13일 생명 나눔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한 이번 헌혈 운동은 임직원 휴게 공간, 숲 라운지에서 진행됐으며, 총 60여 명의 임직원이 고귀한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이날 헌혈을 통해 임직원이 기부한 헌혈 증서는 삼정KPMG 임직원과 가족들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삼정KPMG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매년 2회에 걸쳐 임직원 단체 헌혈 행사를 개최하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소중한 생명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 삼정KPMG 사랑나눔 일정

구분	날짜	활동
1월	13일(토)	제과제빵 봉사활동 (마천, 봉천)
2월	24일(토)	제과제빵 봉사활동 (강남)
3월	24일(토)	제과제빵 봉사활동 (마천, 강남)
	31일(토)	사랑의 밥상 (미정)
4월	7일(토)	나무심기 캠페인
5월	16일(수)	상반기 임직원 헌혈 행사
	26일(토)	제과제빵 봉사활동 (마천, 강남)
6월	22일(금)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23일(토)	제과제빵 봉사활동 (강남)
	30일(토)	세계 유명 음식 나눔 봉사활동 (미정)
7월	14일(토)	제과제빵 봉사활동 (마천, 봉천)
8월	4일(토)	사랑의 밥상 (미정)
	8일(수)	Kids Camp
9월	1일(토)	제과제빵 봉사활동 (마천, 강남)
	15일(토)	사랑의 장바구니 (미정)
10월	13일(토)	가을 나들이
	20일(토)	제과제빵 봉사활동 (강남)
11월	3일(토)	사랑의 김장 나눔
	17일(토)	희망의 연탄 나눔
	24일(토)	제과제빵 봉사활동 (마천, 강남)
12월	1일(토)	천연생활용품 만들기 (미정)
	12일(수)	하반기 임직원 헌혈 행사

The KPMG Story

The KPMG Story는 KPMG가 왜 존재하고(Purpose) 어떤 가치 속에 일하는지(Value), 무엇을 지향하고(Vision) 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며(Strategic) 그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Promise)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상 행동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다.

This is KPMG and
this is our story

This is why we're her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This is our Purpose

This is what we believe in

- Lead by example 솔선수범
- Work together 협업
- Respect the individual 존중
- Seek the facts and provide insight 통찰력
-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소통
- Improve communities 공헌
- Act with integrity 정직성실

These are our Values

This is what we want to be

- The Clear Choice:
- Our people are extraordinary
 - Our clients see a difference in us
 - The public trusts us

This is our Vision

This is how we'll get there

We will:

- Drive a relentless focus on quality and excellent service
- Take a long-term, sustainable view
- Act as a multi-disciplinary firm, collaborating seamlessly
- Invest together in our chosen global growth priorities
- Continuously improve quality, consistency and efficiency
- Maintain a passionate focus on our clients
- Deploy globally our highly talented people
- Bring insights and innovative ideas
- Build public trust

This is our Strategy

This is how we want the world to see us

With passion and purpose, we work shoulder-to-shoulder with you, integrating innovative approaches and deep expertise to deliver real results.

This is our Promise

삼성 KPMG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8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